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leisure activity on the leisure economy of Korean baby-boomers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 수 정 영 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
연구위원 윤 소 영***

The Catholic Univ. of Korea, Consumer & Housing Studies
Professor Jeong, Young-Keu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onvergence Research Division
Research Fellow Yoon, So-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s strategies and leisure culture revitalization to Korean baby-boomers. This study review leisure activities characteristics of Korean baby-boomers and find their characteristics' impact on leisure economy. This research analyzed with raw data of "National Research Leisure Activities 2012" in different methods: analysis of frequen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and etc. As a result, compared to all age groups in Korea, Korean baby-boomers current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s low, but their expense on leisure is high. Their leisure activities are varied from different genders to their incomes. Especially, baby-boomers, who are

* 본 논문은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014년도 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정영금(jeongyk@catholic.ac.kr)

*** 교신저자 : 윤소영(soyoung@kcti.re.kr)

on high income, participate in wasteful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consuming behavior will be the mainstream of Korean leisure economy, so economy, which is aiming for baby-boomers, will be invigorated when the economy is more concerned with use values toward time. Particularly, preparing for the retirement of baby-boomers, further researches based on integrated family policy should be considered plans and efforts on encouraging active volunteer works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culture revitalization of Korean baby-boomers.

Key Words : 베이비부머세대(Korean baby-boomers),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여가경제(leisure economy), 가족정책(family policy)

I. 서론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의 세대, 즉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현재 51세~59세에 해당하는 인구연령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 일컫는다.

이들은 흔히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 가치관을 소유한 ‘깁 세대’ 또는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기도 한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 우선주의 속에서 세대간의 교환에 있어서는 소비지출 내역 중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위·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본인들이 맡아야 한다고 인식(통계청, 2010)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후준비는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스스로 준비하려는 성향(통계청, 2010)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차별화된 안정된 경제력과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세대(The New Age)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루비족(Refresh, Uncommon, Beauty, Young), 나우족(New Older Women), 노무족(No More Uncle), 톱크족(Two Only No

Kids) 등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이들의 은퇴에 대한 대비와 특히 시장에서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며, 자기실현이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활기있는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특징으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및 의료,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안정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보유자산의 운용관리 등 금융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런데 과연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의 노인 세대와 차별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후 삶은 현재 노인들의 삶과는 달리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앞서 밝힌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한 까닭에 노년기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삼거나 제3의 인생으로 인식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존세대와 큰 차이 없이 준비없는 은퇴를 맞이하면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은퇴후 생애주기가 길어진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1954년생 남자의 39.6%, 여자의 46.2%가 98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조선일보, 2011.1.3)

하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새로운 생애 주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들이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차별성’과 인구규모가 거대하다는 ‘영향력’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및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일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측면에서 은퇴 이후에 이들이 겪게 될 시간변화는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젊은 시기동안 공부하고 일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시간에 쫓겨 생활하던 것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 일의 고민이 되는 것이다. 부모세대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아왔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여전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며 부지런히 일해서 조직 내에서 높은 권력을 갖는 데에 가치를 두었다. 그러다보니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가족과의 여가생활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그를 통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데 집중하였다. X세대나 Y세대 역시 일을 중요시하지만, 일에서의 즐거움과 재미에 이어서 여가와 자유시간에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비해서, 베이비부머들은 여가와 자유시간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존경에 우선 순위를 둬으로써(이혜정, 유규창, 2013.) 개인적인 삶이나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경직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현대의 경력관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사다리형의 전형적인 승진과정보다는 자율성이나 융통성을 중요시하므로, 일 중심의 전통적인 경

력관리에 익숙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일생에 걸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정영근, 2011). 여유시간이나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Y세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에서 단순히 시간상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유연성과 통제력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일과 가정, 여가 등 여러 가지의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일생에 걸쳐 변화하지만 이를 예견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 속에서 원치않는 전일제 여가(full-time leisure)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영역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나 체험은 역할상실로 인한 소외감, 고독감을 경감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윤소영, 2006).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은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간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찾는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게 된다.

즉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삶에서 시간사용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의 문제로 옮겨 가게 된다. 이에 대해 Nazareth(2007)는 시간개념에 대한 심리경제적인 용어로 ‘시간예측의 경제’ 사회로부터 ‘여가경제’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세대적 변수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여가경제(leisure economy)는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가치있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거대한 인구의 영향력을 갖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이후 이전과는 시간소비의 가치를 변

화시키고 이를 실제 소비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시장경제의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늘어난 수명 동안 자유시간을 어떻게 가치있게 소비하는가의 문제는 여가활동의 내용이나 질과 관련되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윤소영, 2012).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각되면서 그들의 여가활동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관리적 측면에서 주요 여가활동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들이 특성별로 어떤 여가활동에 집중하는지는 살펴봄으로써 다가오는 여가경제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재 여가활동 특성에 기반해서 은퇴후 자유시간이 확대된 이후의 새로운 삶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여가활동 특성이 행복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소비자로 행동하게 되는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단 여기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심리적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분석되는 여가경제 영역을 찾고자 함을 밝힌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자원관리 전략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둔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베이비부머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 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하면서, 약 55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게 되는 이른바 '쌀물 은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은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진단(삼성경제연구소, 2010)이 우세하다. 은퇴이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생활전반에 걸쳐 박탈감이나 스트레스로 나타나 금전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통계청, 2010),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이전에는 현재 자신이 구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더욱이 마땅한 대안도 없었다. 즉 2009년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간층 이상 이라고 생각한 가구주가 61.6%로 높았으나, 앞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5%에 불과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4명이 연금을 유일한 노후준비로 제시하였으며 심지어 10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느끼는 일상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에 기인하며, 심지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7.1%가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는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문화적 욕구는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대형스포츠 이벤트와 대중문화의 확산을 경험한 세대로서, 은퇴한 VIP 베이비부머 세대인 경우 금전과 시간이라는 소비자원을 모두 보유한 유력한 소비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특히 이들의 소비활동의 동기를 ‘젊음, 향수, 자아’ 라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한 보고서(삼성경제연구소, 2011)에 따르면, 이들은 종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소비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뉴시니어’ 세대로 지칭된다.

이러한 예측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래 실버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정보, 여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실버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되며, 감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전망에 따르면,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43.9조원에서 2010년 148.6조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 중 정보나 여가의 성장률은 각각 25%, 14%에 이른다. 또한 현재 주부나 중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콘텐츠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2011년 에릭 클랩튼, 산타나, 이글스 등 베이비부머의 추억을 자극하는 해외 거장들의 내한공연 성행, ‘민들레 바람되어’(관객 10만 돌파), ‘친정엄마’(관객 절반이 50대 이상), ‘그대를 사랑합니다’(관객 100만명 돌파) 등 영화나 연극 돌풍, 그리고 MBC의 ‘세시봉’ 프로그램 편성과 통기타 열풍 등을 꼽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공략한 아침공연(11시 콘서트 등)이나 평일 낮 중장년 여성을 위한 멤버십 제도(멀티플렉스 CGV의 미즈 스토리 등)를 운영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베이비부머들이 다른 세대와 달리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구표출과 활동성에 따른 적극적인 노후생활(active senior)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연구 결과, 베이비부머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1순위가 소득창출(18.8%)을 제치고 취미생활(42.3%)인 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제시된다.

한편,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연구한 서울대 노화·고령 사회 연구소(2011)는 이들이 지닌 강점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높은 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부모나 자식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손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점,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모임 등 사회참여 성격의 활동에의 높은 참여도 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모임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에의 동기나 참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은퇴후의 삶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애주기 후반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속성 이론에 근거해 볼때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경험이 노후의 삶에서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소외감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결과, 65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늘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중앙일보, 2012)을 밝힌 바 있다.

2. 베이비부머 세대와 여가경제의 시작

여가경제(leisure economy)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하며,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사회의 경제 개념을 말한다

(Nazareth, 2007). 즉 산업사회 이후 현대인들은 제한된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애쓰면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를 시간예속 경제(time-crunch economy)라 한다면 이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간예속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점점 긴 시간 노동을 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시간예속 경제 시대에는 시간을 절약시켜 주고 동시에 여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기능 또는 시간절약 상품이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여가경제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보다 ‘더 많은 여가’를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 젊은 직장인들이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나 일과 삶의 균형, 일가양득, 가족친화제도 등의 제도나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강제로’ 여가경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평생동안 더 많은 돈을 벌고 제한된 시간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은퇴후에 원하지 않은 자유시간을 많은 얻게 된 탓이다(Nazareth, 2007). 그러나 이러한 타율적인 여가중심적인 생활속에서 할 수 없이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증가한 여가시간을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면, 그리고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감을 얻길 원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시간절약’이 아니라 ‘가치있는 시간소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가경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여 노동없는 세계로 진입하는 날이 여가경제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도 일과 여가

의 양립, 혹은 여가중심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가경제를 가속화하고 있다(Nazareth, 2007). 그러나 다른 세대와 비교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커다란 인구구조를 이뤄 시간예속 경제에 편입되어 왔고,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이들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도래하게 될 여가경제의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관련 연구 동향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은퇴시점인 2010년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비롯하여 노후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및 경제적 상황, 소비실태, 은퇴준비 등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에 따른 노후생활설계, 주요 욕구 등의 이슈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 대처방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심리적 변인인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연구(김지훈·강옥모, 2013)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한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연령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U-형태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대적 행복도가 가장 낮음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한 연구(강상경, 2012) 등이 있다. 이 밖에 경영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중년 베이비부머 여성의 삶의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시간, 관계, 젊음과 건강, 자아실현, 의식’으로 제시한 연구(이지현·김선우, 2012)가 있으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력개발 관련 동기요인에 주목하여,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연구(전찬호·진성미, 2011) 등이 발표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퇴직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그 주된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 일자리 관련 요인, 건강, 재정적 인센티브로 구분 제시하였다(Meadows, 2003). 그 외 노동시장에서 분리되는 요인으로서 부양자녀를 가졌거나 미혼인 여성은 조기은퇴율이 높으며, 일보다는 여가에 삶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 역시 일찍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illesley et al., 2001).

여가연구와 관련된 동향은 2000년대 이후 학문으로서의 여가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송태정, 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주 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와 행복과 삶의 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여가학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요구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여가문화학회 등 여가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지식생산 및 구성의 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체육학회지, 여가학연구 등 여가전문학술지를 통해 많은 여가학적인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었다. 그리고 국제여가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학문 교류를 부지런히 시도하였다. 국토연구원(2002)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여가환경변화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중화, 대량화, 장기화의 경향을 띠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광역화, 동적화, 국제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3)가 조사한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르면 노동의식과 직업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새로운 노동의

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주의를 선호하며, 가족과 건강을 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가를 TV 시청과 휴식·수면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문화학회(2002)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증대와 스포츠 활동 참가의 활성화, 여행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 그리고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1)와 현대경제연구원(2002)이 조사한 휴일 여가활동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5,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국가승인통계자료이다. 이에 본 조사는 이 자료 중 베이비부머세대인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조사시점인 2012년도 기준 49세~57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807개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분류된 여가활동은 84개 세부활동에 대해 문화활동(참여활동과 관람활동), 스포츠활동(참여활동과 관람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가공간에 대해서도 문화, 복지 및 교육, 오락, 체육, 종교 및 기타 공간을 포함한 실내공간과 체육, 생활권 공원, 오락, 관광 및 체험, 기타 등의 실외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사는 ‘지난 1년 동안(2011.9.1.~2012.8.31.)’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과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에 대해서 질문하여 응답되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대응일치분석 등이다. 우선 본 조사 대상자인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특성,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측정대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들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공간 이용 특성을 성별 및 가구소득 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의 여가활동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

베이비부머들은 평일에는 평균 약 2시간 56분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며, 휴일에는 평균 약 4시간 48분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일 약 3시간 18분, 휴일 5시간 6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평일에는 약 30분 정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며, 휴일에는 약 10분 정도 여가시간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평일에는 2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가 3시간 30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지만, 휴일에는 다른 소득자에 비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여가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은 약 143,000원 정도 되는데, 이는 2012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 분석된 전 연령층의 평균 약 12만 5,000원 정도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07)

변 수		빈도(명)	비율(%)	변 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5	51.4	연령	50세 이하	163	20.1
	여성	392	48.6		51~54세 이하	411	50.9
결혼 여부	미혼	4	0.5		55~57세 이하	234	28.9
	기혼	764	94.6	최종 학력	초졸 이하	23	2.9
	사별/이혼	39	4.9		고졸 이하	600	74.4
도시규모	서울/광역시	401	49.6		대졸 이상	184	22.7
	시 지역(동)	267	33.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1	8.8
	시 지역(읍/면)	103	1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86	47.8
	군 지역	37	4.6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80	34.6
600만원 이상					71	8.8	

〈표 2〉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특성

(N=807)

변 수		평일 여가시간 (시간)	휴일 여가시간 (시간)	한달 평균 여가비용 (원)	봉사활동 참여함 N(%)	동호회활동 참여함 N(%)
전 체		2.93	4.80	142,901	81 (10.0%)	103 (12.8%)
성별	남성	2.70	4.89	165,897	37 (8.8%)	76 (18.3%)
	여성	3.19	4.72	118,537	44 (11.3%)	27 (7.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37	4.57	118,380	4 (5.4%)	5 (7.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79	4.62	128,687	38 (9.9%)	46 (11.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89	4.80	140,827	29 (10.5%)	37 (13.3%)
	600만원 이상	3.48	6.08	253,459	9 (12.8%)	15 (21.2%)

약 5만원 정도 많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전체 대상자 가운데 10% 내외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도가 약간 높았으며, 동호회 활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모두 높은 소득을 가질수록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1순위에서 5순위를 모두 집계한 전체 순위에서 TV시청(17.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산책(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53.9%)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책(8.4%), 등산(5.4%),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3.3%), 목욕/

사우나/찜질방(2.2%), 낮잠(2.0%) 등으로 나타났다. 산책과 등산,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목욕/사우나/찜질방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유형은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이며, 대부분이 주로 혼자서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인 것을 조사되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집계한 전체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TV시청과 낮잠을 제외하고, 친구만남/동호회 모임(5.8%),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5.1%),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2.9%) 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구기운동, 육상, 수상운동, 헬스/에어로빅, 배드민턴/줄넘기/맨손체조, 요가/필라테스/태보, 사이클링/산악자전거 등을 ‘운동 및 스포츠 활동유형’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키면 TV시청 다음으로 높은 빈도와 비율을 보이는 여가유형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과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성별

〈표 3〉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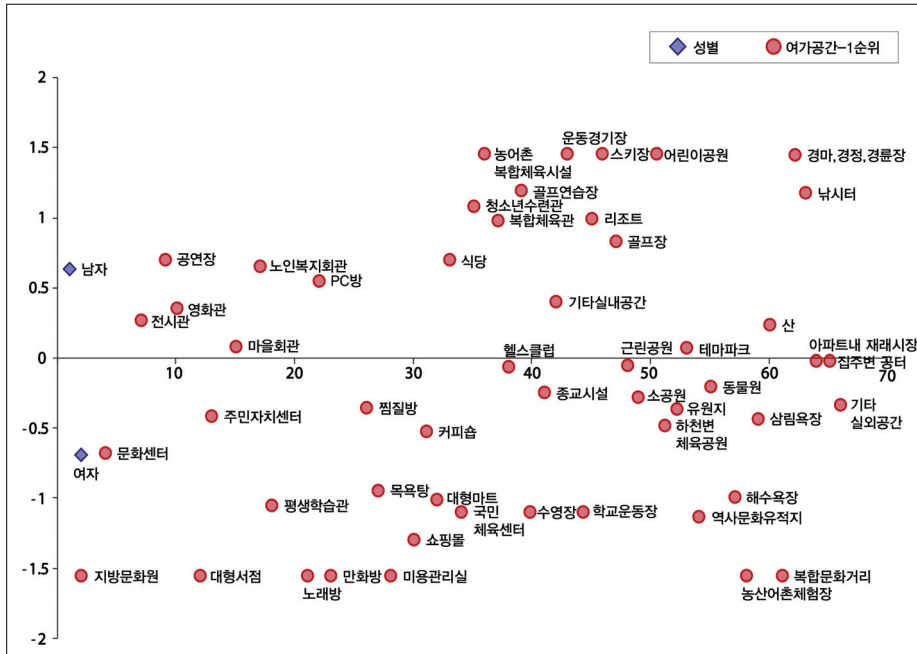
N=807, 단위: N(%)

여가활동 분류	1순위	전체 (1~5순위)	여가활동 분류	1순위	전체 (1~5순위)
TV시청	500 (53.9)	759 (17.7)	육상/조깅/속보	8 (0.9)	35 (0.8)
낮잠	19 (2.0)	209 (4.9)	미용(피부 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3 (0.3)	47 (1.1)
등산	50 (5.4)	305 (7.1)	독서/만화책 보기	4 (0.4)	39 (0.9)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8 (0.9)	251 (5.8)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31 (3.3)	64 (1.5)
산책	78 (8.4)	366 (8.5)	드라이브	3 (0.3)	23 (0.5)
목욕/사우나/찜질방	20 (2.2)	338 (7.9)	애완동물 돌보기	2 (0.2)	24 (0.6)
쇼핑/외식	12 (1.3)	269 (6.9)	배드민턴/줄넘기/맨손체조/ 스트레칭/홀라후프	4 (0.4)	18 (0.4)
종교활동	13 (1.4)	80 (1.9)	게임 (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4 (0.4)	23 (0.5)
음주	14 (1.5)	185 (4.3)	노래방 가기	1 (0.1)	30 (0.7)
게모임/동창회/ 사교(파티)모임	7 (0.8)	217 (5.1)	바둑/장기/체스	1 (0.1)	22 (0.5)
영화보기	17 (1.8)	82 (1.9)	사회봉사활동	0 (0.0)	13 (0.3)
신문/잡지보기	13 (1.4)	102 (2.4)	음악 감상	5 (0.5)	28 (0.7)
구기운동(테니스/스쿼시/농 구/배구/축구, 족구 등)	15 (1.5)	35 (0.8)	삼림욕	2 (0.2)	9 (0.2)
스포츠 경기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15 (1.6)	62 (1.5)	요가/필라테스/태보	12 (1.3)	23 (0.5)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9 (1.0)	123 (2.9)	수상운동(수영, 윈드서핑, 상스키, 래프팅 등)	6 (0.6)	33 (0.7)
인터넷 검색/채팅	10 (1.1)	73 (1.7)	요리하기/다도	2 (0.2)	21 (0.5)
가족 및 친지방문	0 (0.0)	62 (1.4)	지역축제 참가	0 (0.0)	8 (0.2)
라디오 청취	5 (0.5)	39 (0.9)	문화유적방문 (고궁, 절, 유적지 등)	1 (0.1)	8 (0.2)
낚시	3 (0.3)	45 (1.0)	사이클링/산악자전거	1 (0.1)	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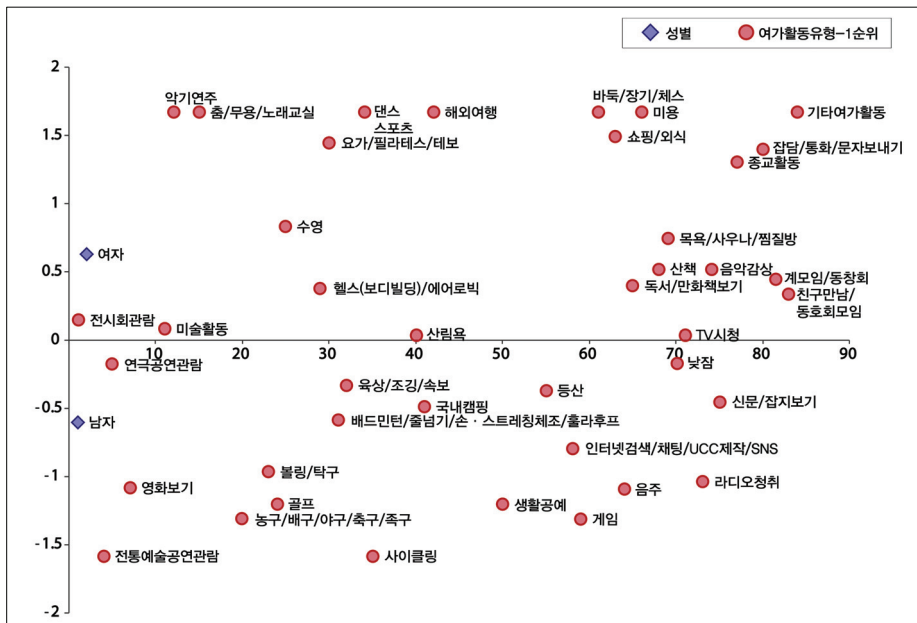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

및 가구소득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응
일치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 중 남성이 주
로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보기, 볼링/탁구, 등산,
골프, 게임, 음주, 사이클 등이며, 여성이 주로 하
는 여가활동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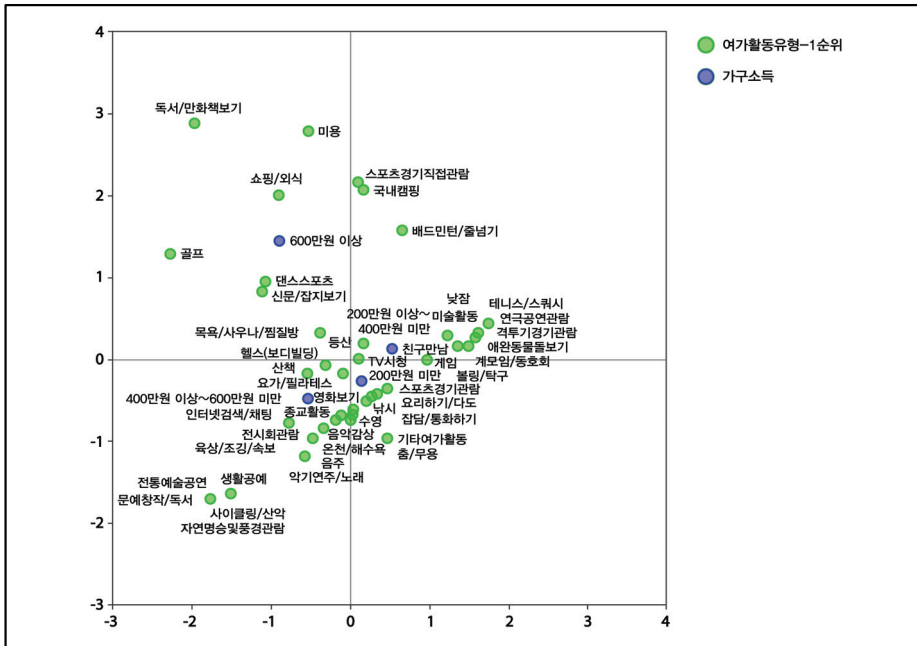
테스/태보, 헬스/에어로빅, 쇼핑이나 외식, 종교활
동, 친구모임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리고
남성은 경마/경정/경륜장, 낚시터, 골프장, 골프연
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의 민간여가공간이
나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복합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여가공간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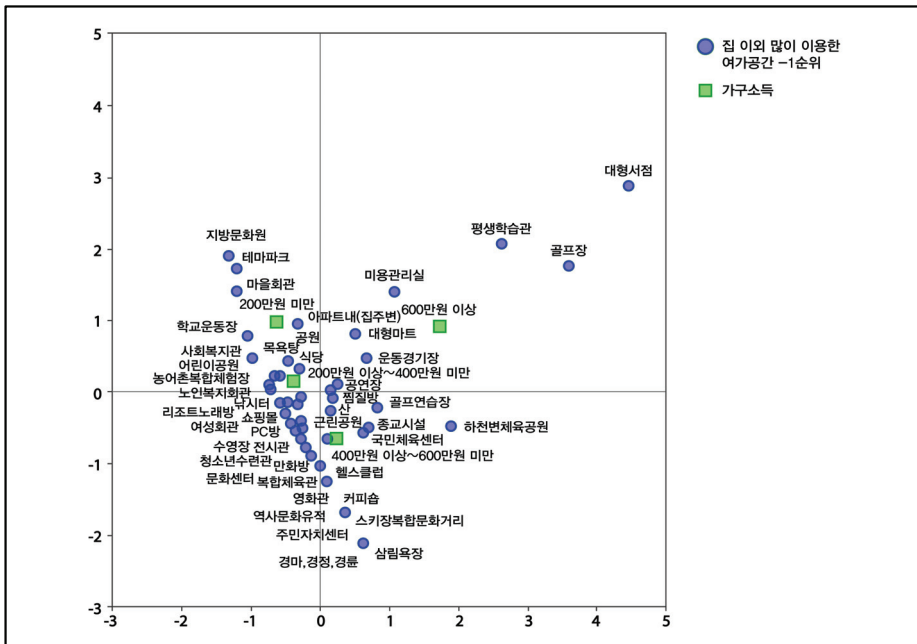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여가공간 대응일치 분석



〈그림 2〉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일치 분석



〈그림 3〉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일치 분석



〈그림 4〉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공간 대응일치 분석

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커피숍, 찜질방, 쇼핑몰, 미용관리실, 수영장, 헬스클럽, 문화센터 등의 민간여가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근린공원, 학교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 중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구/배구/야구, 요리하기/다도, 게임, 그리고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산, 미술활동, 테니스/스쿼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의 경우 요가, 산책, 전시회관람 등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며, 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골프, 댄스스포츠, 쇼핑/외식 등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그림 3).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공간 대응일치 분석 결과, 200만원 미만의 경우 마을회관, 학교운동장,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의 경우 낚시터, 리조트, 수영장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의 경우 헬스클럽, 커피숍, 스키장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며, 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골프장, 공연장, 찜질방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3.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베이비부머들의 여가활동 특성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일 여가시간, 휴일여가시간, 한 달 평균 여가비용, 봉사활동 참여, 동호회 활동 참여 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4.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은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봉사활동 참여와 동호회 활동 참여는 $p<.01$ 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한달 평균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단,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행복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p<.05$), 휴일여가시간($p<.01$), 동호회 활동 참여($p<.05$)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여성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p<.01$), 한

<표 4>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전체			남자			여자		
	B	베타	t	B	베타	t	B	베타	t
평일 여가시간(시간)	.054	.058	1.481	.144	.136	2.240*	.131	.151	2.943**
휴일여가시간(시간)	.048	.069	1.719	.124	.174	2.784**	.005	.008	.151
한달평균 여가비용(원)	.000	.070	2.084*	.000	.072	1.322	.000	.093	2.216*
자원봉사활동 참여	.549	.105	3.165**	.488	.088	1.631	.524	.106	2.521*
동호회 활동 참여	.482	.094	2.794**	.594	.128	2.368*	.488	.087	2.033*
(상수)	43.386 ***			11.704 ***			14.422 ***		
R ²	.048			.074			.061		
adj. R ²	.043			.061			.053		
F	9.246 ***			5.629 ***			7.341 ***		

* $p<.05$, ** $p<.01$, *** $p<.001$

달 평균 여가비용($p < .05$), 봉사활동 참여($p < .05$), 동호회 활동 참여($p < .05$)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언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하여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과 여가경제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그들의 여가활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인 산업일꾼으로 불리면서 열심히 일한 세대로서 현재에도 일하는 시간량이 가장 많으며, 수면시간을 포함한 개인 유지시간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동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 집단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취미 및 집밖의 레저 활동에 대한 참여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관람이나 문화행사 참여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베이비부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여가문화 활동의 체험이 전 연령층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즉 사회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연장 이용률(86%), 연극 및 뮤지컬 관람률(25.2%), 영화관람률(86.9%), 전시장이용률(31%)이 전연령층의 평균(각각 89.5%, 26.2%, 91%, 32.5%)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관리의 특징이 다른 연령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은퇴후의 시간관리 변화나 새로운 활동에의 욕구 증가 측면에서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생애주기 초기와 전반에 경험한 활동이 노후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력관리가 여가문화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윤소영, 2010)는 사실에 근거한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은퇴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생애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연령통합적인 시간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시간 및 금전 자원 등 여가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연령집단의 평균값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집안에서 혼자 즐기는 휴식형 여가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가 나타나는 경향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관광활동 등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잠재적인 여가활동 욕구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후 시간구조의 변화를 겪게 될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을 탐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여가경력(leisure career)이 없이 갑작스럽게 은퇴시기에 새로운 활동을 활기차게 접근하고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일-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현재 여가시간은 적으며 여가비용은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은퇴전 연령임을 감안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여가활동이 은퇴후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윤소영, 2012)이 있다는 여가경력이론에 근거한다면, 현재의 여가활동 특성이 은퇴후 생활구조나 소비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임을 분명하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이 남성과 여성, 소득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별 변수에 따라 여가시간, 여가비용, 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참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자주 방문하는

여가공간 등이 뚜렷이 구분된다. 더욱이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하고 소비집중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라고 볼 때 이러한 소비행태가 여가경제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프, 댄스스포츠, 공연관람 등의 활동과 관련된 여가공간은 베이비부머들이 중심이 되는 여가경제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이 과거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는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사용가치를 중시할 때 여가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들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전에는 18홀을 다 돌 시간이 없어서 9홀만 돌고도 만족했다면, 이제는 고급 골프 클럽에 가입해서 여유롭고 재촉하지 않는 골프장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여가활동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비용이나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때, 이들을 위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여가경제의 영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세대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자원의 재배치 및 생애설계에 대한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된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시간자원과 여가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가족자원경영 측면의 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요구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면서 남은 생애동안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과 노력이 통합적인

가족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연령통합적인 시간관리와 여가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베이비부머의 향수찾기 열정을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사업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실버문화학교’(문화원)나 ‘복지현장의 예술강사 파견사업’(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노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playcare’와 같은 노인전문 문화예술기획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실버시장이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주력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 세대의 변화가 미비하지만 실제 은퇴를 통해 약 55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별로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여가적 삶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제의 특성을 갖는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사회의 요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족여가를 통한 가족자원봉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영근, 2009). 은퇴 이후 8만 시간(60세 정년 이후 80세 평균 수명까지 하루 10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할 총량)의 자유시간을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커뮤니티 참여, 멘

토활동, 재능기부, 제2의 직업 창출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2) 국토연구원(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3) 권현정 · 박화옥(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복지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28(3), 535-553.
- 4) 김지훈 · 강옥모(2013).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갈등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1), 51-69.
- 5)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 6)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7) 박태정(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29-57.
- 8)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삼성경제연구소.
- 9) _____(2003). 한국사회의 가치관 급변과 혼동. 삼성경제연구소.
- 10) _____(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11) _____(2011).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노트. 삼성경제연구소.
- 12) 서울대 노화 · 고령 사회 연구소(2011).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연구. 서울대 노화 · 고령 사회 연구소.
- 13) 송태정(2000).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96.
- 14) 여가문화학회(200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및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여가문화학회.
- 15) 윤소영(2006). 노인 여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47-63.
- 16) _____(2012). 100세 시대 대비 지역여가향유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모델 구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보고서.
- 17) _____(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03-115.
- 18) 이지현 · 김선우(2012). 한국의 베이비부머세대 중년여성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질적연구 - 서울 거주 중산층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2), 127-157.
- 19) 이혜정 · 유규창(2013).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 노동정책연구, 13(4), 1-32.
- 20) 전찬호 · 진성미(2011). 경력중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의 경력개발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HRD연구, 13(2), 21-43.
- 21) 정경희(2010).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22.
- 22) 정영금(2009). 가족여가를 통한 가족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9(1), 5-21.
- 23) _____(2011). 일생에 걸친 경력관리를 통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41-53.
- 24) 조선일보(2011). 100세 쇼크 극복인가 재앙인가! 71년생 돼지띠 남성들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2011.01.03. 1면.
- 25) 중앙일보(2012). 여가활동을 제2직업으로. 노후 ‘행복 포트폴리오’ 짜라. 2012.03.06. 10면

- 26)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27) _____(2009).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통계청.
- 28) _____(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통계청 보도자료.
-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여가백서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1) 현대경제연구원(2002).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소비변화. 레포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32) Nazareth, L.(2007). The Leisure Economy. Canada: John Wiley & Sons.
- 33) Meadows, P.(2003). Retirement Age in the UK: a review of the literature.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18, DTI.
- 34) Tillesley, C., P. Taylor, J. Beausoleil, R. Wilson & A. Walker(2001).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Behavior.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Report.

- 투 고 일 : 2014년 3월 17일
- 심 사 일 : 2014년 4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6일